

MBK 의혹 및 주장에 대한 실체와 진실

Korea Zinc Co., Ltd.

Disclaimer

본 자료에 포함된 재무 실적은 K-IFRS를 기준으로 하는 연결 재무실적입니다.

본 자료는 시장상황, 금융환경, 사업환경, 경영계획 등 여러 변수와 관련된 예측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예측정보와 실제 실적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작성된 것이며,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성도에 대하여 어떠한 직·간접적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 또한 당사는 언제든지 본 자료를 수정 또는 교체할 권리가 있으며,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그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
Allegations and Claims by MBK & YP

- 1.** '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주가 및 TSR 동종업계 대비 부진
자의적인 비교 기간(24년 8월 31일 기준)
설정을 통한 왜곡된 주장

 - MSCI ACWI Metal & Mining Index 구성 기업과 고려아연은 사업 형태 및 시장이 다르며, 특히 해당 Index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 총액 규모가 큰 기업 비중이 높기에 직접 비교가 어려움. KRX Steels Index는 국내 금속 업종 지수로서 해당 지수 내 국내 유일의 직접 비교 가능 기업은 영풍임
 - MBK는 고려아연이 설정한 24년 8월 31일이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시점은 MBK-YP가 공개매수를 선언하기 이전 시기로 왜곡된 주장임
- 2.** 영풍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였으며
영풍과의 사업
협력관계 유지는 양사에게 긍정적이라는 주장

 - 영풍이 환경개선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'19년, '24년말 반복하여 환경 관련 법령 위반이 적발되며 각각 60일, 1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 받음
 - 영풍 석포제련소는 세계 4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,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부산물인 황산 취급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않고, 관련 비용, 법적/ESG리스크를 20년간 고려아연에 전가
 - 영풍과의 협력관계는 영풍에게만 높은 내수 판매 비중을 보장할 뿐, 고려아연에게는 영풍의 불안정한 조업으로 인해 연간 원료 조달 계획 수립 리스크로 작용
- 3.** 집중투표제 도입은 고려아연 경영권
유지수단이라는 주장
이사 수 상한 설정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
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

 -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연대와 시민단체,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도입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 제도로 도입 시 이사회 다양성 강화, 투명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
 - 이사 수 상한이 없는 이사회 구성은 비효율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운영을 초래하며, 주요 의결권기관에서도 이사회의 지나친 비대화를 반대
- 4.** 고려아연의 후진적 지배구조는
비대칭적 임원 보상에서 드러난다는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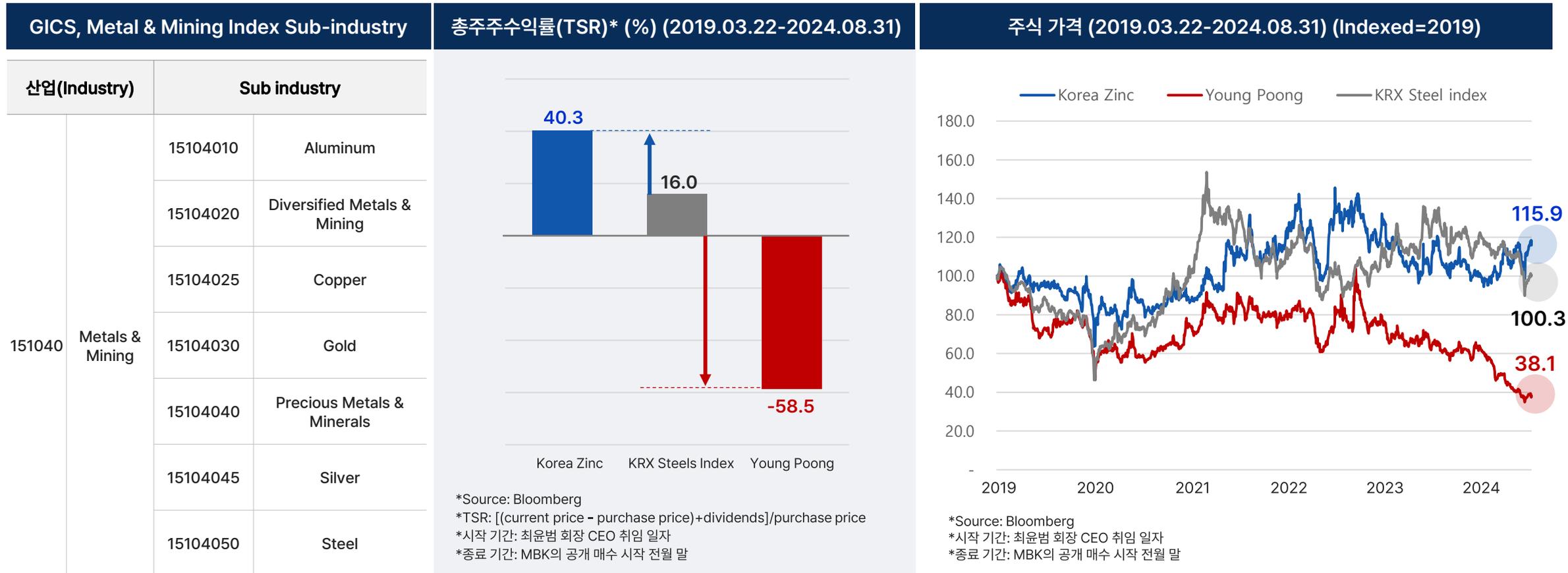
 -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증가된 것을 감안하지 않은 왜곡된 수치를 제시 (실제 23년 보수 지급 대상 기타 등기임원 의 보수는 MBK가 제시한 수치의 2배)
 - 23년의 임원 보수 증가는 21년 영업이익 최초 1조원 달성, 22년 매출 최초 11조원 달성 등 높은 경영성과 달성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반영되어 있음
 - 동종 업계, 시총 유사 규모 기업 보수현황을 고려했을 때, 고려아연의 기타 등기임원과 최상위 직급자의 보수액 차이만으로 지배구조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려움
- 5.** MBK & YP 측 사외이사 후보 및
당사 후보에 대한 분석 및 의견
MBK & YP 이사회 후보 Squad별 BSM 비교

 - MBK & YP측 이사회후보는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혹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, 스스로 강점이라고 주장하는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에 있어 실패 사례도 다수 존재
 - MBK & YP측 이사 후보자는 고려아연의 이사회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기여가 불가하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
 - 현 이사회가 MBK 측 제안 후보 대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BSM(Board Skill Matrix)을 통해 드러나며 현 이사회가 향후 고려아연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최적의 이사진임을 알 수 있음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1.

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주가 및 TSR 동종업계 대비 부진

- MSCI ACWI Metal & Mining Index에 포함된 기업은 주로 광산-제련소 결합 기업으로써 고려아연과 사업구조와 체급이 다르고 주력 시장 역시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는 부적절
- KRX Steels Index는 국내 금속 업종 지수로서 영풍만이 동 지수내 유일하게 국내 직접 비교 가능 기업이며, 고려아연은 영풍 대비 우수한 실적을 기록

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1. 자의적인 비교 기간(24년 8월 31일 기준) 설정을 통한 왜곡된 주장

- 고려아연의 주가 및 TSR은 최윤범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
- 또한, MBK는 고려아연이 설정한 24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시점은 MBK-YP이 공개매수 선언 이전 시기로, 주가와 거래량 모두 비이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았기에 왜곡된 주장임

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2.

영풍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영풍과의 사업 협력관계 유지는 양사에게 긍정적이라는 주장

- 영풍이 환경개선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주장 : 2019년, 2024년말 반복하여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며 각각 60일,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음
- 세계 4위 영풍 석포제련소 : 제련 시 발생하는 유해물인 황산 취급 설비를 갖추지 않고, 이에 따른 비용과 사법 환경 위험을 20년간 고려아연에 전가
-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관계 : 영풍에게만 높은 내수 판매 비중을 보장할 뿐 영풍의 불안정한 조업으로 인해 고려아연의 연간 원료 조달 계획 수립 리스크로 작용

현안	MBK & YP 주장	Fact Check
영풍의 계속되는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풍은 중대재해방지과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 5년간 대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수 천억을 투자해 가시적인 환경 개선 결과를 창출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5년간 가시적인 환경 개선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 환경오염으로 조업정지 60일 행정 처분, 2024년 환경오염으로 10일 행정 처분 등 환경오염이 반복되고 있음 • 6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후 재가동 허가 기준인 '25년 6월까지 폐기물 60만톤 처리 진행율도 '24년 8월 기준 24%에 불과, 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영풍이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
고려아연에 위험관리 전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황산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 • 황산 취급 대형 소송은 20년간 지속된 거래를 갑작스럽게 단절 통보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03년 최초 계약 당시, 영풍은 황산관리 시설부족을 사유로 당사가 3 년만 취급대행을 해주면 3 년 안에 자체적인 시설관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 후 3 년이 지난 시점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19년째 당사의 황산관리 시설을이용해 음 •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고위험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, 단일제련소 기준 세계 4위 영풍은 이를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• 설비 노후화, 거주지를 통과하는 황산 운송에 따른 리스크 로 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전달했음에도 양사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명목으로 황산 취급에 따른 비용 및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전가. 더욱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월 제3자의 황산 취급 관련 고려아연에 행정 처분 사전 통보를 함.
고려아연에 기댄 영풍 주주 가치 극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력관계는 양사에게 이득 •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훼손은 영풍의 주주가치 훼손이기 때문에 영풍의 이해관계와 상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력관계는 영풍에게는 수혜, 고려아연에게는 부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료 공동구매: 영풍의 지속적인 환경 오염에 따른 조업정지로 생산 변동에 따른 정광 수급 예측과 조정 한계로 고려아연 부담 증가 - 제품 공동판매: 현재 KZ과 YP의 생산 비율은 67% : 33% (2023년 기준)이나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내수판매에 대해 YP물량을 생산 비율보다 높은 40 %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여 17년째 시행(2008년부터) • 영풍은 주주 가치를 보존해오거나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, 최근(2024년 12월 3일) 영풍의 주주인 해외의 한 자산운용사 메트리카는 주주서한을 통해 영풍이 고려아연을 통해 받는 배당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율은 개선되지 않았으며, 주주 가치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함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3. 집중투표제 도입은 고려아연 경영권 유지수단이라는 주장

- 01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연대와 시민단체,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도 도입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 제도로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 다양성 강화, 투명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
- 02 일반적인 보통결의 투표방식은 이사 후보를 선출할 때 과반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, 사실상 이사회는 최대주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03 이는 MBK & YP이 주장하는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개선을 매우 어렵게 만들
- 04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중투표제. 이사 후보 투표 시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 또는 다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보통결의보다 투표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3. 집중투표제 도입은 고려아연 경영권 유지수단이라는 주장

- 05 회사 발전을 위해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지배주주 한 쪽이 지지할 경우 소수주주 추천 이사가 이사회에 손쉽게 합류할 수 있음
- 06 이는 곧, 양측의 상호경쟁과 균형을 통한 견제와 소수주주의 캐스팅보트 기능이 크게 강화되는 것임
- 07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고 소수주주 영향력이 커지면,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MBK & YP 등 지배주주들은 각자 소수주주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수 밖에 없음
- 08 결국, MBK & YP은 회사 발전이나 소수주주 보호 등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회 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3.

유미개발의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이 정한 집중투표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라는 주장

- 01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될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생. 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일 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 의안에 시행 시기가 분명하게 명시
- 02 MBK & YP는 주주 유미개발이 집중투표를 청구할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, 유미개발의 집중투표청구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이 가결되어 즉시 시행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이나 정관에 저촉되지 않음
- 03 유미개발은 임시주주총회일 6주 전인 2024. 12. 10. 고려아연에 정관변경 의안 가결을 조건으로 하는 집중투표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음. 6주 전 청구 요건은 회사로 하여금 집중투표 실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, 고려아연은 의안이 가결될 경우와 부결될 경우를 나누어 이사 선임에 관한 의안과 표결 방법을 정하고 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, 위임장 용지 등에 반영하는 등 집중투표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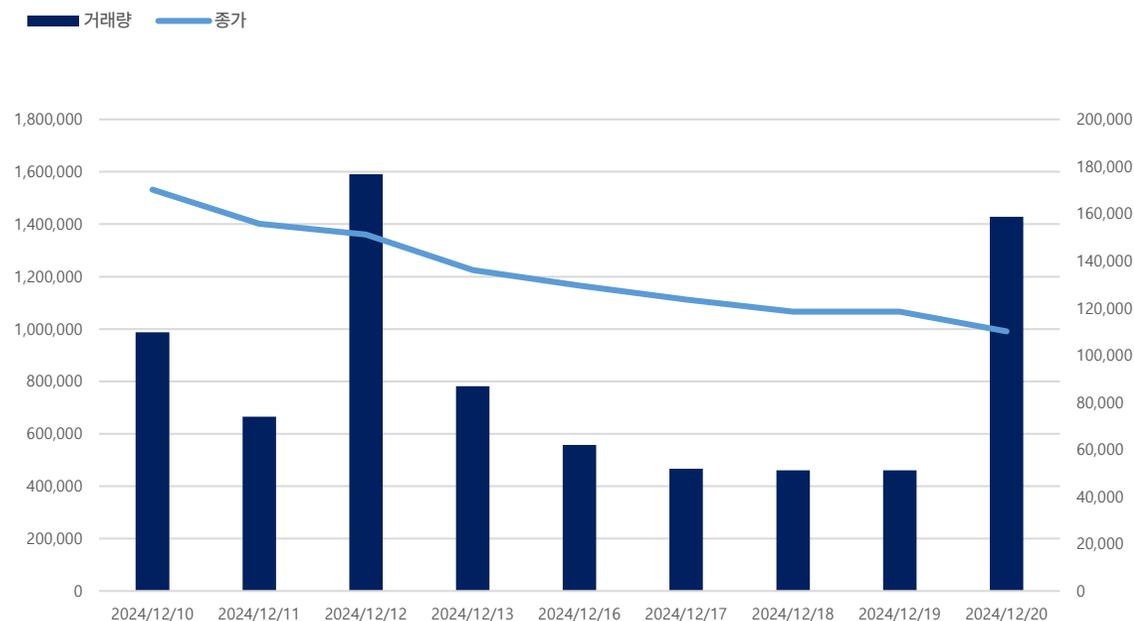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3.

집중투표제 청구 후 고려아연측은 주가 하락기간 중 수월하게 주식을 매수했을 개연성 존재한다는 주장

- 집중투표 청구일(12월 10일)부터 임시주총소집 안건 확정 이사회 결의 직전 영업일(12월 20일)까지 주가는 -35% 하락
- 해당기간 동안 오히려 MBK & YP은 평균단가 1,324,423원 및 총 99,631주의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

고려아연 주가 및 거래량

(주,원)



2024년 12월 19일 당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

(주,원)

성명 (명칭)	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	변동일*	취득/처분 방법	주식등의 종류	변동 내역			취득/처분 단가	
					변동전	증감	변동후		
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	825-86-03185	2024-12-10	장내매수 (+)	의결권 있는 주식	1,518,696	19,400	1,538,096	1,572,472	-
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	825-86-03185	2024-12-11	장내매수 (+)	의결권 있는 주식	1,538,096	14,555	1,552,651	1,440,798	-
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	825-86-03185	2024-12-12	장내매수 (+)	의결권 있는 주식	1552651	15,401	1,568,052	1,324,193	-
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	825-86-03185	2024-12-13	장내매수 (+)	의결권 있는 주식	1568052	16,825	1,584,877	1,285,514	-
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	825-86-03185	2024-12-16	장내매수 (+)	의결권 있는 주식	1584877	11,650	1,596,527	1,201,606	-
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	825-86-03185	2024-12-17	장내매수 (+)	의결권 있는 주식	1596527	10,800	1,607,327	1,145,375	-
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	825-86-03185	2024-12-18	장내매수 (+)	의결권 있는 주식	1607327	11,000	1,618,327	1,098,672	-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3.

이사 수 상한 설정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라는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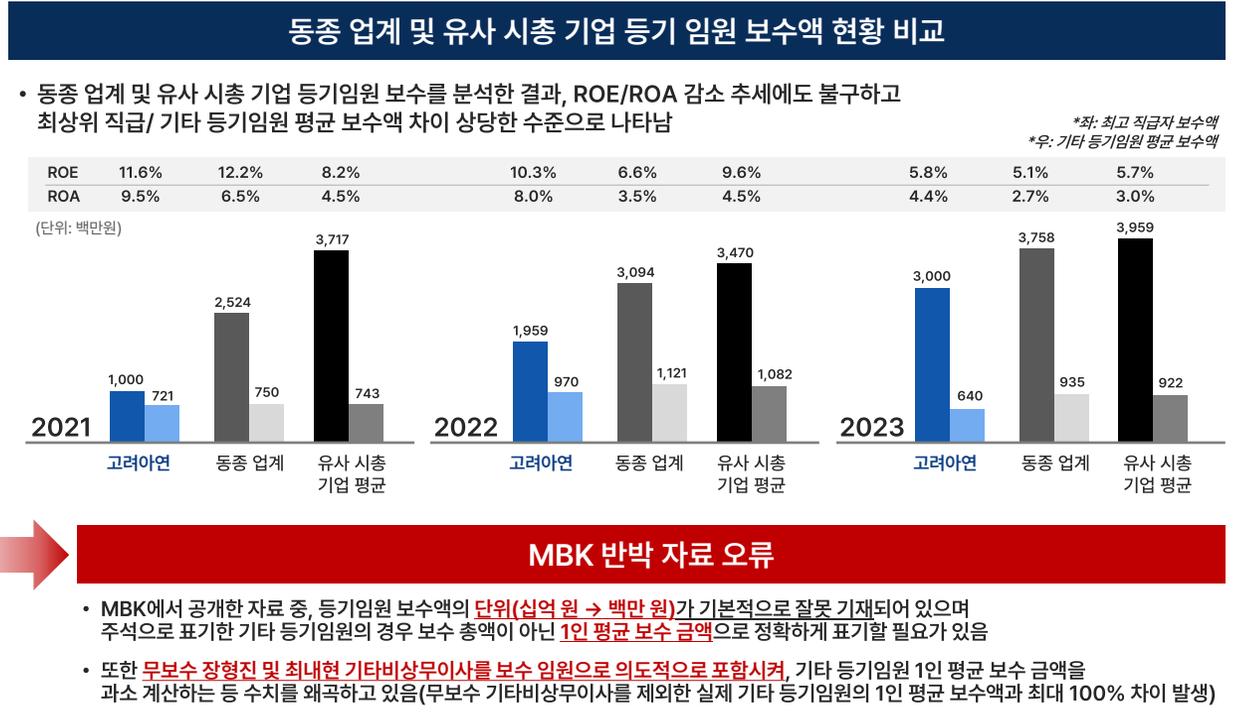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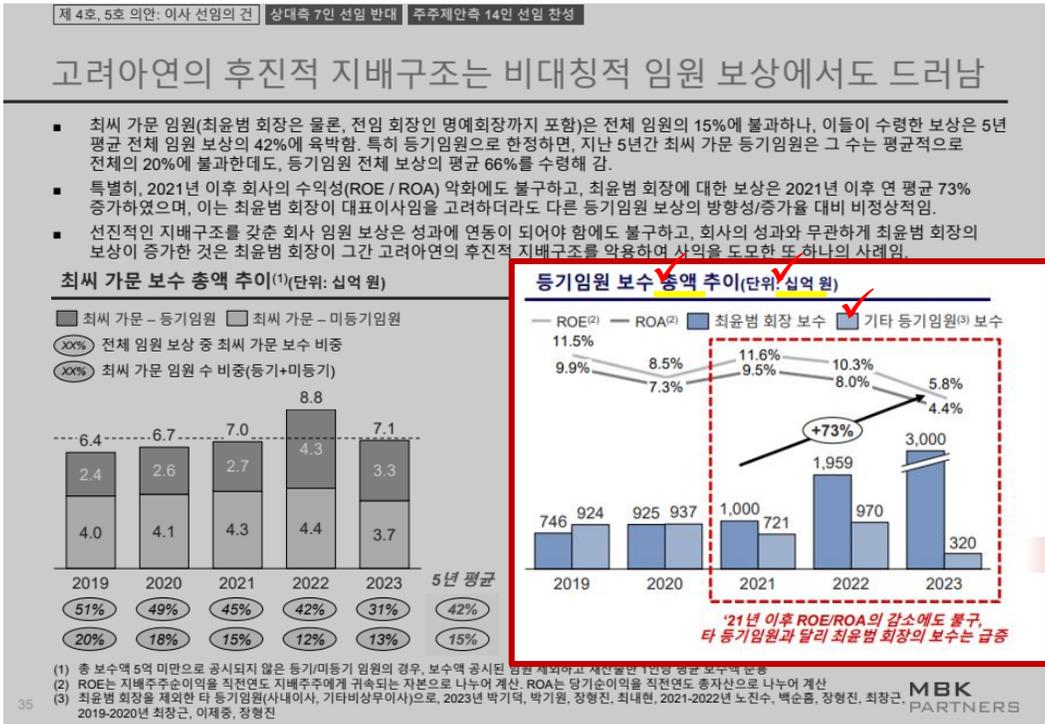
- 이사 수 상한 설정 정관변경안이 부결되고, MBK & YP 측 신규이사 14인이 모두 선임된다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12명에서 26명으로 증가
*1명 사임으로 13명 → 12명
- 26명의 이사회 구성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심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함
- 국내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(14인 이하), 현대자동차(13인 이하), POSCO홀딩스(13인 이하) 모두 이사 수 상한 설정을 두고 있음
- 국내외 주요 의결권자문기관에서도 이사회 규모의 지나친 비대화를 반대

구분	Glass Lewis	ISS	국민연금공단 / 한국ESG연구소 / KCGS	서스틴베스트
이사회 규모 가이드라인	20인 이상의 이사회 구성은 시기적절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반대	이사회 구조나 규모를 회사 지배를 위한 명목으로 바꾸려는 안건에 대해 반대	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이사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	의사결정에 효과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지나친 확대 및 축소에 반대

고려아연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비대칭적 임원 보상에서 드러난다는 주장

- 등기 임원 보수의 경우,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매년 승인 받고 있으며 당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
- 또한, 동종 업계 및 비슷한 시총 규모의 기업에서도 직급 및 업무의 내용에 따라 등기임원 사이에서 보수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

- '23년도에는 회장으로의 승진 및 '21년 영업이익 1조 클럽(최초), '22년 매출 11조 달성(최초) 등 2년 연속 우수한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보수 인상 효과가 나타났음
- 또한 '23년도 기타 등기임원 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'22년 등기임원 2인이 '23년도에 제외되었으며,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기타 비상무이사(최내현 대표)가 포함되었기 때문임

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이사회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고려아연 측 사외이사 후보 (1/2)

-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에 대하여 MBK & YP측은 사실을 왜곡 또는 호도하는 등 '흠집내기'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
-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자는 글로벌 수준의 BSM 확보를 위해 필요역량인 Finance와 Risk Management를 보완하여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함

구분	안건명	추천인	MBK & YP 측 주장	고려아연 측 FACT CHECK 및 의견	권고
제4/5-1호	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	고려아연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대표 출신으로, 고려아연 사외이사 선임 시 중국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 존재함 • 실제로 어피너티 대표 재직 당시 락앤락 인수 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락앤락의 아산 공장을 매각한 바 있음 	<p>후보자는 어피너티파트너스에서 2023년 6월 퇴사 이후 현재 어피너티에 아무런 직책을 두고 있지 않으며, 독립적으로 고려아연 사외이사직 등을 수행할 예정임</p> <p>어피너티는 아시아-태평양 지역 중심 펀드로 아시아에 5곳,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는 11개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있음</p> <p>현재 차이니즈월 위반 의혹 및 실제로 중국 정부 자금을 운용 중인 MBK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중국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당부분 자인하는 것으로 보임</p>	찬성
제4/5-2호	사외이사 이형규 선임의 건	고려아연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천도시가스 사외이사 당시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활동 독립성 결여 • 한양대 로스쿨 원장 재직 당시, 한양대 로스쿨 전형요강 위배 지원자 합격으로 교육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음 	<p>공시자료상 영풍의 사외이사들도 부의된 모든 안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,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내용 확인 없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 없음</p> <p>로스쿨전형 요강 위반 사건의 경우, 한양대 뿐만 아니라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경희대 등 13개 로스쿨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진 사건임. 해당 사건의 경우 교육부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지침에 근거하여 과거 입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며, 한양대 로스쿨은 마련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</p>	찬성
제4/5-3호	사외이사 김경원 선임의 건	고려아연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진 사외이사 재직중이나,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활동 독립성 결여됨 • 잇츠한불 사외이사 재직 당시, 지속적 매출 하락 상황 하에서도 임병철 회장 및 특수관계인에게 고배당 실시하여, 지배구조 문제 지적된 적 있음 • 잇츠한불 사외이사 재직 당시, 출석률 저조하였으며, 모든 안건에 찬성함. 	<p>후보자는 국내외 경제 · 재무 관련 지식과 기업의 위기대응 전략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진의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 관리,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고, 높은 이사회 출석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독립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판단하였음</p> <p>잇츠한불 재직 시점에 지속적 매출 하락을 강조하고 있으나, 외부 요인('한한령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, 코로나 및 HNB스토어 성장)에 의한 일시적 매출 하락('19년)만 있었기에 지속적인 매출 하락이라고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. 또한 잇츠한불 사외이사 재직 시 일부 출석률이 저조한 기간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고, 21년 이후에는 출석률이 100%였다는 점에서 출석률이 저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</p>	찬성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이사회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고려아연 측 사외이사 후보 (2/2)

-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에 대하여 MBK & YP측은 사실을 왜곡 또는 호도하는 등 '흠집내기'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
-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자는 글로벌 수준의 BSM 확보를 위해 필요역량인 Finance와 Risk Management를 보완하여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함

구분	안건명	추천인	MBK & YP 측 주장	고려아연 측 Fact Check 및 의견	권고
제4/5-4호	사외이사 James Andrew Murphy 선임의 건	고려아연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직 근무한 호주 퀸즐랜드 주는 고려아연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 받아 사업을 진행해온 곳으로, 신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를 우려하여 최윤범을 지지하고 있어 최윤범 회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실질적 이해상충 우려가 있음 • 퀸즐랜드 재무책임자 근무 당시 고려아연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, 이로 인한 이사로서의 독립성 이슈 우려가 있음 	<p>호주의 경우,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 또한 엄격하게 제정되어 있음</p> <p>MBK & YP측 추측성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를 폄하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부당한 의혹 제기엔 불과함</p>	찬성
제4/5-5호	사외이사 정다미 선임의 건	고려아연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세실업 사외이사 재직 당시 모든 안건에 찬성한 이력이 있어, 사실상 이사회에서 거수기가 될 우려 존재함 	<p>후보자는 경영/회계/ESG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본인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엔 불과함</p>	찬성
제4/5-6호	사외이사 이재용 선임의 건	고려아연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전공이자 에듀테크 경력 중심 후보자로, 고려아연의 주사업분야와 일치하지 않아 MBKP-영풍 후보 대비 열위로 판단됨 	<p>고려아연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신사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, 후보자는 IoT 전문가로서 IoT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고려아연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</p>	찬성
제4/5-7호	사외이사 최재식 선임의 건	고려아연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I를 활용한 공정 최적화, 예측 진단 등의 스타트업 중심 경험으로, 대형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인 트로이카드라이브에 기여 가능할 지 의문임 	<p>포스코 '스마트 고로' 프로젝트에 참가하여, 대형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제조 산업의 공정최적화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</p>	찬성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안건 - MBK & YP 측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분석 및 의견 (1/4)

후보자	MBK & YP 주장	Fact Check	의견
<p>(1)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강성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아연을 영풍이 경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, 영풍의 지배구조를 거론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의혹 제기임. 또한 영풍은 주주환원 및 위험 관리를 적극 강화하고 있음. 후보자는 오랜 금융/산업분야의 경력을 보유하고, 영풍-고려아연 양사간 협업과 사업 시너지 창출 및 고려아연의 경영과 투자이력을 잘 알고 있어 고려아연 부실투자 정상화에 기여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풍의 경영관리임원으로서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리스크 관리 실패로 기업가치/주주가치 훼손 - 영풍은 안전/환경 법규 위반으로 조업정지 및 대표이사 2인 구속기소(현재 보석/불구속 기소) 고려아연 직위 겸직 시 이해상충 우려 및 (주)영풍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할 가능성 농후 - 영풍의 미등기임원임에도, 소송 및 기자회견 주관 등 실질적 영풍의 대표자 역할 수행 중 - 경쟁자인 영풍과 고려아연 직위 겸직 시 이해상충 및 영풍의 이해관계만 대변할 가능성 상당 이에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개선에 가장 부적합한 후보로 판단됨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대</p>
<p>(2)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김광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한된 파트너들이 여러 포트폴리오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음. 더욱이 김광일 후보자가 참여 중인 이사회는 모두 비상장회사임. 105억원은 관련 거래처와의 전체거래 규모이고 그 중 일부 금액을 해당 직원이 kick-back하여 배임한 것으로서, 자체 조사에서 적발하여 이사회에 감독하에 롯데카드가 직접 해당 직원 및 용역 업체를 형사고발한 것임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비상무이사직의 충실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상당한 우려 존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모펀드 특성 고려에도 불구하고, 상장여부 무관 20여개 국내/외 기업 임원 직책 수행 중 * ⓐ 시간적/물리적으로 가능한지, ⓑ 충실히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상당한 우려 존재함 * 일반적인 PEF 투자기업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 롯데카드 배임사건은 회사가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한 것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체 금액 105억 중 직원들 66억,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가 챙긴 사건으로 이 사실을 인지한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, 금감원이 현장검사 통해 혐의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 * 혐의자를 직접 형사고발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, 금감원이 내부통제 실패 책임 있는 임직원에 엄중 조치 및 내부통제 점검을 지시한 바, 당시 이사로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후보자의 직접적 책임 존재 이에 충실한 업무수행 불가 및 기존 후보자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, 부적합한 후보로 판단됨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대</p>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안건 - MBK & YP 측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분석 및 의견 (2/4)

후보자	MBK & YP 주장	Fact Check	의견
<p>(3) 사외이사 후보자 권광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DLF,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받은 사항 없으며, 이러한 사태 이후 은행장 재임 기간 동안 조직 안정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한 결과 당기 순이익 70% 증가 등 성과 개선 달성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존재, 기업가치 제고, 도덕성 및 소통능력에 상당 의구심 존재 * DLF 및 라임 불완전 판매 당시 IB그룹장으로서, 징계 없으나 관리감독 책임 존재 * 은행장 재직 시, 후보 부적합 판정으로 연임 실패('22년) 시중 은행장이 2년 임기 후 연임에 실패하여 퇴직한 것은 이례적이며, 도덕성 · 평판 · 업무능력 및 실적 · 지주와의 원팀 소통능력 등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짐 이광구 전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('17년) 관련, 부정입사자 '조모씨'의 청탁자로 의혹이 제기된 바, 본인의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 및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있음 기존 논란을 고려할 때, 사외이사로서 도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	<p>반대</p>
<p>(4) 사외이사 후보자 김명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 최대 물류체인인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, 조세 관련 높은 전문성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 가능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세 전문성은 사업과 연계된 재무적 지표 관리가 강조되는 상장회사 재무건전성과 매우 제한적인 관계를 가지는 바, 조세 전문성만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려움 고려아연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	<p>반대</p>
<p>(5) 사외이사 후보자 김수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롯데카드 이사회 일원으로서 MBK파트너스와는 독립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, 특히 감사위원회 및 ESG위원회 활동으로 ESG 성과 창출에 핵심 기여하였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BK의 롯데카드 인수 후,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된 시기 포함 재직기간('19~'24년) 동안 모든 안건에 찬성한 바, 독립성이 결여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거수기가 될 우려 존재 롯데카드 사외이사 임기가 '25년까지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사임한 것은 상법상 결격사유 회피를 위함으로 보이며, 이는 후보자와 MBK 간 강한 유착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임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바, 부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	<p>반대</p>
<p>(6) 사외이사 후보자 김용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대백화점 사외이사 재직할 '16년 이래 실적 개선 ('17년~현재 매출 연평균 14% 성장)과 주주환원정책 강화(매년 배당 확대)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회사 재직기간('16~'20년)이 아닌, 퇴임 이후 포함 '17년~현재 기준 실적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을 운운하는 것은, 통계를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이는 모두 거짓임. 동원F&B의 경우, 잔여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사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충실히 사외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외이사직의 충실하지 못한 수행 이력을 감안할 때 부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	<p>반대</p>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안건 - MBK & YP 측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분석 및 의견 (3/4)

후보자	MBK & YP 주장	Fact Check	의견
(7) 사외이사 후보자 김재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두산그룹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, 사장까지 승진한 산업 전문가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에도 사장으로서 독립적 경영활동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작기계산업과 비철금속제련업은 業의 특성이 상이한 바, 비철금속제련업 경험 및 이해도 부족으로 산업 전문가라 칭하기 어려우며, 사외이사도 아닌 대표이사가 대주주로부터 독립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통상의 실무에 비추어 근거가 빈약함 	반대
(8) 사외이사 후보자 변현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울촌 재직 시, MBK파트너스 관련 법률자문 직접 관여 이력 없음 오히려 최윤범 회장 측의 법률자문사로 알려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언론에 따르면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(주)영풍 관련 변호인 중 1명으로 알려짐 현재 (주)영풍과 이해관계 존재하는 바, 활동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이사회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여짐 	반대
(9) 사외이사 후보자 손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문 계약은 고려아연과 경북대 간 체결된 계약으로, 후보자와의 거래가 아니며 상법상 결격사유 미해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아연으로부터의 강연료 수취('23년 5.4천만원)만으로도 독립성은 훼손되었다 볼 수 있으며, 자문 계약은 경북대 내부 프로세스 준수 위해 고려아연, 경북대 및 후보자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후보자가 사실상 계약 당사자로서 자문 수행 및 자문료를 최종 수취('23년 실 수령 5.4천만원) 후보자는 단 한 해 동안 고려아연으로부터 총 1억원 가량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,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결여가 심히 우려스럽다 할 수 있음. 	반대
(10) 사외이사 후보자 윤석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렌지라이프(ING생명)은 '17년 5월 상장했고, 후보자는 '18년 5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 논란 관련, 당시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겸직은 없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BK와의 '장기간의 유착관계'로 형성으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훼손 심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김병주 회장 주도 한미은행 인수 후, 김병주 회장과 함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약 8년 간 활동('01~'08년)하였으며 MBK장학재단 사외이사직을 역임하였음 MBK 투자기업에서 약 사외이사 10년간 재직: HK저축은행('06~'11년), ING생명('13~'18년) '18년 MBK의 오렌지라이프(ING생명) 매각 당시 신한금융지주 고가매수 논란이 존재하였으며, 이에 MBK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연루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됨 '98~'18년 총 8곳의 사외이사/비상임이사로 활동하였으며, 특히 HK저축은행과 ING생명 등 5곳 활동 시 겸직 미신고로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제기 MBK와의 유착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및 도덕성 흠결로 인해 부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됨 	반대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안건 - MBK & YP 측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분석 및 의견 (4/4)

후보자	MBK & YP 주장	Fact Check	의견
(11) 사외이사 후보자 이득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0년 두산인프라코어(現 HD현대인프라코어)의 사업 중단 및 매각에 따른 매출/영업이익 일시 감소하였으나, 오히려 후보자 이사 재직 간 빠른 성장세로 회복하였음. · 오히려 재직중인 2022년에는 현금배당을 재개하면서 총 주주환원율을 개선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MBK & YP 측에서 언급한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 시('20년 3월~'23년 3월), 회사의 성과 및 주주환원율에 개선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실제 공시된 수치에 부합하지 않음. *사외이사 재직 시, '22년 매출은 '19년 매출 대비 급감(8조 → 4조원대)하였으며 주주수익률 또한 '20년 42.7%에서 16.3%로 감소 	반대
(12) 사외이사 후보자 정창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포스코홀딩스가 사외이사에게 정관과 사규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, 위법사실 확인된 바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재 업무상 횡령,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관련 수사 중인 점을 감안 시, ESG관점에서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여짐. · 철강업과 비철금속 제련업은 業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, 해당 경력만으로 고려아연의 사업에 기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	반대
(13) 사외이사 후보자 천준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외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회사들의 경우 모두 상장사와 버금가는 규모의 선도기업으로 실적/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MBK & YP 측에서 언급한 회사 재직 시, 한 회사는 2024년 첫 흑자를 기록하였으며, 다른 한 회사는 각종 '갑질' 논란이 존재 했었던 바, 실적/거버넌스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· 공개매수 관련 MBK & YP 측에 우호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기고한 이력이 있으며, 그 후 금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점을 고려할 때,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음 	반대
(14) 사외이사 후보자 홍익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에 부족한 리스크 분야 전문가임 · 고려아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순 경찰로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고 하여 리스크 분야 전문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임 · 제련업의 특성 및 산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/대응 체계 구축에는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	반대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 최윤범 회장 측 제안 이사진으로는 유의미한 거버넌스 개선 불가

現 이사회와 회사는 사업 및 관리감독 위한 충분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으나, 기존에 수립한 거버넌스 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 수준의 BSM 확보를 위하여 국내/외 전문 기관의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필요역량(Finance/M&A, Risk)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MBK & YP 측의 자신들의 문제제기로 관리감독 기능 결여를 시인하였다는 주장은 '억지 주장'이며, **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BSM의 특성을 무시한 채 타 기업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스킵셋 부족을 논하는 것은 '프로페셔널'하지 못한 행위임**

MBK & YP 측 주장

제 4호, 5호 의안-이사 선임의 건 | 상대측 7인 선임 반대 | 주주제안측 14인 선임 찬성

최윤범 회장 측 제안 이사진으로는 유의미한 거버넌스 개선 불가

- 실패한 이사회와 중심에 있는 최윤범 회장 측이 신규 선임하는 이사진은 이미 실패한 이사회와 연속에 불과함. 고려아연의 새로운 이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러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 실패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임. 그런데,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7인의 신규 이사들이 자신들을 추천한 기존 이사회와 과오를 바로잡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.
- 특히, 회사도 인정하였던 현 이사회 내 재무/M&A측면의 이사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은 단 한 명의 재무/M&A 전문가를 신규 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음. 이러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재무/M&A 전문성 부족 및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결여를 고려하면 원아시아파트너스, 이그니오홀딩스와 같은 투자 참사는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음.

고려아연이 발표한 이사진 보강 계획 (의안설명자료)

MBK-영풍 컨소시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회사도 현 이사회가 재무/M&A 측면에서 전문성 및 관리감독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음.

그러나,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신규 선임 제안한 총 7인의 이사 후보 중 재무/M&A 전문가는 단 한 명(이상훈 후보자)임. 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처방임.

더욱이, 이상훈 후보자는 대규모 투자 및 사업 재편 등 복잡한 재무 및 M&A 의사결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트랙레코드가 확인되지 않음.

국내 타 기업 이사진 구성과의 비교

국내 철강금속기업이면서 전략적으로 신사업을 집중 추진 중인 포스코홀딩스의 경우, 재무/M&A 측면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의 비중이 전체 이사회 내 70% (7명 중 5명) 수준임.

Fact Check 및 고려아연 최종 의견

1. 거버넌스 개선 일환 글로벌 수준 BSM 완성

- ① 기존에 발표한 거버넌스 개선 계획의 일환이며,
- ② 글로벌 기준으로 국내/해외 전문 기관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Finance/M&A, Risk 역량 보완하여 사업 필요 역량을 완성함
- ③ BSM 기준을 미 충족하였을 뿐, 이사회/회사는 관련 역량을 갖추고 있음

2. 유의미하지 않은 타 기업과의 BSM 직접 비교

기업별로 글로벌 기준을 바탕으로 각 사별 특수성을 고려한 BSM을 정의하고 있는 바, 타 기업과의 직접 비교는 유의미하지 않음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MBK & YP의 후보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

BSM은 통용되는 글로벌 기준이 존재하며, 후보자가 직접 경험한 '경력', 관련 분야에 대한 '높은 전문성'에 기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MBK & YP 측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,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'짜집기'한 BSM을 기반으로 스스로 제안한 후보자의 스킬을 '과대평가'하여 마치 자신들의 후보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후보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음

MBK & YP 측 주장

제 4호, 5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| 상대측 7인 선임 반대 | 주주제안측 14인 선임 찬성

MBKP-영풍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더 나은 이사회

- MBKP-영풍은 현 이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고,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확립하고자 자본시장, 법률, 제조업, 거버넌스 영역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14 인을 신규 이사로 제안함. 14명이라는 숫자는 최윤범 측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다수를 구성하여 이사회 개혁을 이끌고가기 위해 필요한 숫자임.
- 이사 후보 14인은 사업전략, M&A/재무/회계, 법률/리스크 관리, ESG/거버넌스 4개의 Squad로 구성되어 있음. 각 Squad는 내부 시너지를 발휘하며, 전체적으로는 One-Team으로서 고려아연의 밸류업을 실현할 것임.

	산업 전문가	기업 가치 제고	M&A 및 투자유치	재무 및 회계	법률	리스크 관리	ESG	글로벌	다양성
사업전략 Squad									
사외이사	김재섭(리더)	●	●	●				●	●
사외이사	손홍상	●	●	●			●	●	
사외이사	정창화	●	●	●			●	●	
기타비상무이사(現)	장형진	●	●	●			●	●	
M&A/재무/회계 Squad									
기타비상무이사	김광일(리더)		●	●	●	●		●	●
사외이사	권광석		●	●	●	●		●	●
기타비상무이사	김성두	●		●	●	●		●	●
법률/리스크관리 Squad									
사외이사	변현철(리더)			●	●	●	●		
사외이사	김명준			●	●	●	●		
사외이사	이득홍			●	●	●	●		
사외이사	김수진			●	●	●	●		●
ESG/거버넌스 Squad									
사외이사	윤석현(리더)			●	●	●	●	●	●
사외이사	전준범			●	●	●	●	●	●
사외이사	김용진	●			●	●	●	●	●
사외이사	홍익태				●	●	●	●	●



Fact Check 및 고려아연 최종 의견

1. 자신들에게 유리한 '짜집기' 식 BSM 구성

- ① 널리 통용되는 **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,**
- ② **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BSM을 '짜집기'하였으며,**
- ③ **'기업가치 제고', '다양성' 등 정성적 항목을 다수 추가하였음**

2. '마구잡이식' 및 왜곡된 스킬 보유 주장

- ① **후보자 미 경험 분야,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,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,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**
- ② 실제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서도 이를 과대평가하여 **'마구잡이식'으로 후보자 경력을 과대평가하여 스킬 보유를 주장**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 새로운 이사 후보진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, 독립성

MBK & YP 측은 BSM 기준 자신들이 제안한 후보자가 고려아연 제안 이사회 대비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는 **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BSM을 통해 자신들의 후보자를 과대평가한 '작위적 행위'**로 이를 통하여 정보를 왜곡하고 있음

이사회 BSM 강화 시, ①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, ②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바, MBK & YP 측의 왜곡된 주장을 바라잡고자 글로벌 수준의 BSM 평가를 통하여 MBK & YP 측 제안 이사회 BSM을 전면 재검토함

MBK & YP 측 주장

제 4호, 5호 의안: 이사 선임의견 | 상대측 7인 선임 반대 | 주주제안측 14인 선임 찬성

새로운 이사 후보진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, 독립성

- MBKP-영종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이사 후보진은 9개 영역 모두에 대해 풍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.
- 반면 고려아연측 신규 이사진은 재무/M&A/리스크 관리 부문의 개선을 방향으로 설정했음에도 해당 역량을 보완하지 못함.

고려아연 및 MBKP-영종 제안 이사회 BSM 비교⁽¹⁾

	고려아연 제안 이사회	MBKP-영종 제안 이사회
총 이사진 수	18명	15명
BSM 평균(%)	20%	35%
산업전문성	33% (6/18) =	33% (5/15) ⁽²⁾
기업가치제고	11% (2/18) <	33% (5/15)
M&A/ 투자유치	17% (3/18) <	33% (5/15)
재무 및 회계	28% (5/18) <	40% (6/15)
법률	22% (4/18) <	33% (5/15)
리스크 관리	11% (2/18) <	33% (5/15)
ESG	17% (3/18) <	53% (8/15)
글로벌	22% (4/18) <	47% (7/15)
Diversity	17% (3/18) >	7% (1/15)

MBKP-영종 제안 이사진은 확실한 독립성 확보

MBKP-영종 제안 이사진의 경우 경영/산업/법률/ESG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, 현 이사진 및 신규 후보 7인 대비 **전반적 전문성 제고**

MBKP-영종 제안 이사진은 고려아연 중장기 성장 위해 필수적인 M&A, 투자 유치, 기업가치 제고 역량 **관점 압도적 우위 보유**

MBKP-영종 제안 이사진에는 고려아연 리스크 관리 및 기술 보호에 핵심적인 재무/회계/리스크 관리 전문가 및 기업법, 특허법 분야 중심 법률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나, 고려아연 이사진은 해당 역량 미흡함을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관련 역량 미비

MBKP-영종 제안 이사진은 사회적 책임(S) 및 거버넌스(G) 전문성 대폭 강화하여, 고려아연의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

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인 글로벌 밸류체인 및 신사업 위한 **글로벌 경험 인력 확보**

(1) 기존 이사 및 신규 후보자를 포함해, 최우선 및 MBKP-영종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최중 이사회 구성에 기반함.
(2) 영종 장항진 고문은 현 이사회 소속이며 신규 후보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, 새로운 이사 선임 시 함께 산업 전문성에 기여할 것임.

MBK PARTNERS

Fact Check 및 고려아연 최종 의견

1. BSM 재검토 결과 고려아연 측 **전** 영역 보유

- ① MBK & YP 측이 주장 BSM 기준 **전** 영역의 역량 보유
- ②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기반 독립적 활동 가능
- ③ 기존 사업 및 트로이카 드라이브 견인 가능한 이사 후보 제안

2. MBK 측은 법률 영역 **외** 대안 제시 한계

- ① MBK & YP 측 이사진은 독립성 훼손 후보자 다수 존재
- ② 법률 역량 외 **전** 영역에 있어 고려아연 대비 열위
- ③ 강점이라고 주장하는 M&A/투자 유치, 기업가치 제고, 리스크 관리에 있어 대안 부재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MBK & YP 측 BSM을 글로벌 기준으로 재검토

MBK & YP 측이 제시한 이사 후보자의 BSM을 글로벌 기준으로 재검토할 경우 상당 수의 Skillset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
(글로벌 기준: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'경력'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'전문성' 등에 기반하여 평가)

[비고] 기존 이사진 중요 스킬 영역 전문성 보유 MBK & YP 측 주장 스킬이나 실제 미 보유

직 위	성 명	Leadership	Operations	Industry /Tech	Academia	Strategic Planning	International	Financial /M&A	Risk	Audit	Legal	Government	ESG
사업전략 Squad													
사외이사	김재섭(리더)	●		X			X	X					
사외이사	손호상			X	●		X						●
사외이사	정창화	●		●		●	●	X					X
기타비상무이사(現)	장형진	●		●				X	X				
M & A / 재 무 / 회 계 Squad													
기타비상무이사	김광일(리더)							●					
사외이사	권광석						X	●					X
기타비상무이사	강성두	●		●				X					
법률 / 리 스 크 관 리 Squad													
사외이사	변현철(리더)										●		X
사외이사	김명준							X	X	●			
사외이사	이득홍										●		
사외이사	김수진										●		X
E S G Squad													
사외이사	윤석현(리더)				●		X	●	X			●	
사외이사	천준범										●		●
사외이사	김용진				●		X	●	X				
사외이사	홍익태								X			●	X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이사후보 Squad별 BSM 비교: 사업전략 Squad

現 이사회 및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자는 사업전략을 수립/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Skillset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,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한 최적의 이사진임
반면 MBK & YP 측은 '작위적'으로 후보자 스킬 과대평가하였으며, Skillset 편향 및 필요 Skillset 누락되어 있어 고려아연 측 제안 대비 대안 제시가 미흡함

사업전략 Squad BSM 비교

[비 고] 기존 이사진 중요 스킬 영역 ● 전문성 보유 X MBK & YP 측 주장 스킬이나 실제 미 보유

		Leadership	Operations	Industry /Tech	Academia	Strategic Planning	International	Financial /M&A	Risk	Audit	Legal	Government	ESG
고려아연 후보자	최윤범	●											
	정태웅		●	●									
	최내현			●									
	김경원				●	●				●			
	이형규						●				●		●
	이재용			●	●							●	
	합계	1	1	3	2	1	1			1	1	1	1
MBK & YP 후보자	김재섭	●		X			X	X					
	손호상			X	●		X						●
	정창화	●		●		●	●	X					X
	장형진	●		●				X	X				
	합계	3	-	2	1	1	1	-	-	-	-	-	1

• 現 이사회는 제련업 및 트로이카드라이브에 대한 높은 이해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고려아연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실행 주체로서 사업전략의 지속성,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이사진임으로 판단됨

•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자는 본인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있어 필요한 지식/기술/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음
• 특히 Legal, Government, ESG 영역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, ESG관점에서 사업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• MBK & YP 측 후보자는 장형진 기타비상무이사 제외, 제련업에 대한 몰이해 및 사업 기여 가능한 경험/스킬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(김재섭: 공작기계 전문/손호상:정창화: 철강산업 전문)

• 재검토 결과 기존 보유하고 있다 주장하는 Skillset은 미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, 사업전략 기능에 있어 필요한 Skillset이 다수 누락되어 있음
•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제고 및 사업전략 고도화에 있어, 고려아연 측 제안 대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이사후보 Squad별 BSM 비교: M&A/재무/회계 Squad

現 이사회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신사업 간 시너지 창출 경험이 있으며 신규 후보자 선임을 통해 전략적 M&A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에 반해 **MBK & YP 측 후보자는 보유 스킬이 미흡할 뿐 아니라 재직 기업에서 기업가치 훼손하거나 미흡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로 구성됨**

M&A/재무/회계 Squad BSM 비교

[비 고] 기존 이사진 중요 스킬 영역 ● 전문성 보유 X MBK & YP 측 주장 스킬이나 실제 미 보유

		Leadership	Operations	Industry /Tech	Academia	Strategic Planning	International	Financial /M&A	Risk	Audit	Legal	Government	ESG
고려아연 후보자	박기덕	●											
	김도현				●								
	이상훈					●	●	●		●			
	James Murphy					●	●						
	최재식			●	●								
	합계	1	-	1	2	2	2	1	-	1	-	-	-
MBK & YP 후보자	김광일							●					
	권광석						X	●					X
	강성두	●		●				X					
	합계	1	-	1	-	-	-	2	-	-	-	-	-

• 現 이사회는 사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및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련업과 현재 추진중인 신사업 간 시너지 창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됨

• 이상훈 후보자는 기업가치제고는 물론 전략기획, M&A, 투자유치, 및 재무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
 • James Murphy 후보자 역시 전략기획 및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바,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확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

• 김광일 후보자는 20여개 국내/외 기업의 임원 직책 수행이
 ①시간/물리적으로 가능한지,
 ②충실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우려가 상당 부분 존재함
 (* 일반적인 PEF 투자기업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임)

• MBK & YP 측 후보자는 고려아연 측 후보자 대비 필요 Skillset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, 특히 강성두/권광석 후보자는 재직 기업의 기업가치를 훼손 또는 미흡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(이력) 존재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

이사후보 Squad별 BSM 비교: 법률/리스크 관리 Squad

現 이사회는 제련업 및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법률 자문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, 신규 후보자는 글로벌 수준 BSM 확보 가능한 인물로 구성 이에 반해 **MBK & YP 측 후보자는 법률 전문성 外 전문성이 미흡하며, 자신들이 문제제기 중인 리스크 관리 분야에 있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**

법률/리스크 관리 Squad BSM 비교

[비고] 기존 이사진 중요 스킬 영역 ● 전문성 보유 X MBK & YP 측 주장 스킬이나 실제 미 보유

	Leadership	Operations	Industry /Tech	Academia	Strategic Planning	International	Financial /M&A	Risk	Audit	Legal	Government	ESG
고려아연 후보자	서대원								●			
	권순범									●		
	성용락									●		
	정다미				●			●	●		●	
	합계	-	-	-	1	-	-	-	1	2	2	1
MBK & YP 후보자	변현철									●		X
	김명준						X	X	●			
	이득홍									●		
	김수진									●		X
	합계	-	-	-	-	-	-	-	-	1	3	-

• 現 이사진은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사업 추진 관련 다수의 법률 자문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을 축적해왔으며,
 • 정다미 후보자는 경영/회계 및 관련 정책 분야 전문가로서, 특히 리스크 관리 기능에 있어 이사회의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

• 고려아연 이사회 및 후보자는 법률/리스크 관리에 있어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 관련 법률 지원, 법적 리스크 예방/관리, 준법 경영체계, ESG 경영 강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제련업과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이사진이라 판단됨

• MBK & YP 측 후보자는 법률 전문성 보유 외에 리스크 관리 및 Government 분야에 있어 어떠한 경험/스킬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
 • 특히 조세 전문가를 재무 및 회계,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둔갑시킨 점은 '침소봉대'하는 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

• 기존에 MBK & YP 측이 문제로 제기한 리스크 관리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결책을 제시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며, 특히 변현철, 김수진 후보자의 경우 이해관계로 인해 활동 독립성이 훼손되었음

MBK & YP의 의혹 및 주장 5. 이사후보 Squad별 BSM 비교: ESG Squad

現 ESG 위원회*는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들의 ESG 및 리스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, 고려아연의 ESG 경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
MBK & YP 측 후보자는 ESG 관련 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, MBK & YP 측 이해관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거버넌스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

*24년 12월 23일 이사회 결의로 ESG 위원회 설치

ESG Squad BSM 비교

[비 고] 기존 이사진 중요 스킬 영역 전문성 보유 MBK & YP 측 주장 스킬이나 실제 미 보유

		Leadership	Operations	Industry /Tech	Academia	Strategic Planning	International	Financial /M&A	Risk	Audit	Legal	Government	ESG
고려아연 후보자	황덕남										●		
	김보영											●	●
	이민호				●								●
	합계	-	-	-	1	-	-	-	-	-	1	1	2
MBK & YP 후보자	윤석현				●		X	●	X			●	
	천준범										●		●
	김용진				●		X	●	X				
	홍익태								X			●	X
	합계	-	-	-	2	-	-	2	-	-	1	2	1

•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제련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, 향후 ESG위원회 구성 시 고려아연의 ESG경영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이사진이라고 판단됨

• 특히 이민호 사외이사는 환경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ESG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, 김보영 사외이사의 경우 고려아연의 ESG 활동을 적극 제안하고 있음

• ESG스킬은 MBK & YP 측 후보자 중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, 관련 경험이 부족한 인원을 다수 추천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해가 심히 우려스러움

• 윤석현 후보자는 MBK와의 강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으며, 천준범 후보자는 공개매수 우호글 다수 기고하는 등 두 후보자 모두 MBK 측과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바 독립성 훼손이 심히 우려됨



**World's Leading
Green Energy and Material Provider**



IR contact [IR @ koreazinc.co.kr](mailto:IR@koreazinc.co.kr)